

포기 몰랐던 남녀 수구 대표팀, 의미 남긴 '1승·1골'

수구 불모지 한국, 개최국 자격 출전권 획득 사상 첫 승·첫 골로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

한국 남녀 수구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22일 막을 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에서 한국 남자 대표팀은 15위, 여자 대표팀은 16위를 차지했다.

보잘 것 없는 성적이지만, 남녀 대표팀이 세운 소박한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한국 수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남자 대표팀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상 첫 승을 해냈고, 여자 대표팀은 '1골'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은 수구 불모지다. 대한수영연맹에 수구 선수로 등록된 인원은 총 406명뿐이다. 이 중 경영을 겸하는 선수가 339명으로, 순수하게 수구 선수로만 등록된 인원은 67명뿐이다. 67명은 모두 남자고, 이중 실업 선수로 등록된 이는 36명에 불과하다. 여자 수구 팀은 동호인 클럽팀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번 대회도 자격으로 출전할 것이 아니다.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이 주어졌다. 남녀 모두 이번 대회가 첫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었다.

특히 여자 대표팀의 경우 대표팀이 구성된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 이번 대회 조별예선 1차전이 한국 여자 수구 역사상 첫 공식경기였다. 남자 대표팀은 수구 선수들이 이뤄졌으나 세계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약제로 분류될 만큼 변방이다. 광주가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지만, 대한수영연맹이 손을 놓고 있었던 탓에 대표팀이 이번 대회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다.

국내에 이렇다 할 선수가 없는 여자 대표팀은 북한과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다 무산돼 대회를 한 달 반 앞둔 5월 말에야 부랴부랴 대표팀을 구성했다. 전문 수구 선수는 단 1명도 없었고, 대부분 경영 선수들로만 이뤄졌다. 중학생 2명, 고교생 9명, 대학생 1명, 일반부 1명이 포함됐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 6월2일부터 불과 40여일 가까이 훈련하고 이번 대회에 나섰다.

남자도 뒤늦게 대표팀이 구성돼 지난 4월 중순에야 훈련을 시작해 약 3개월 동안만 손발을 맞추고 세계 강호들을 상대했다.

세계와의 전력 차와 부족했던 준비 시간을 선수들이 더 잘 알았다. 대표팀 선수들의 목표는 소박했다. 남자 대표팀은 '1승'이 목표였다. 사실상 출전에 의의를 뒤야 했던 여자 대표팀의 목표는 '1승'도 아닌 '1골'이었다.

남녀 대표팀은 세계의 높디높은 벽을 피부로 느껴야 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높은 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작은 목표라도 이루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남자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에



서 메달을 따지기가 있는 강호들을 상대한 조별예선에서 잇따라 패배를 당했다. 그리스에 3-26(0-7 0-7 1-3 2-9)로, 세르비아에 2-22(1-6 0-5 1-4 0-7)로 패한 한국은 몬테네그로에 6-24(1-6 1-4 1-8 3-6)로 패했다.

13-16위 결정전에서 만난 아시아 최강 카자흐스탄도 대표팀에는 높은 벽이었다. 역시 4-17(1-4 2-4 0-7 1-2)로 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남자 대표팀은 결국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간절했던 '1승'의 목표를 이뤄냈다. 23일 벌어진 뉴질랜드와의 15·16위 순위결정전에서 승부던지기 끝에 17-16(3-3 2-2 4-5 3-2 5-4)로 극적인 승리를 거둬 한국 수구 역사상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승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다.

여자 대표팀은 조별예선 첫 경기에서 헝가리에 0-6(4-0 1-6 0-18 0-16)로 4-0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다. 기가 죽을 뻔도 했지만 선수들은 이를 악물었다. 각오를 다진 여자 대표팀은 두 번

째 경기에서 소박한 목표를 이뤘다. 러시아와의 조별예선 2차전에서 역사적인 첫골을 넣는데 성공했다. 주인공은 경다슬이었다. 4쿼터 4분16초를 남기고 한국 여자 수구 사상 첫 골을 터뜨렸다.

경기에서는 1-30(0-7 0-9 0-8 1-6)으로 패했지만,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서로 열사안고 눈물을 흘렸다.

여자 대표팀은 캐나다와의 조별예선 3차전에서는 두 골을 터뜨렸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13-16위 결정전에서는 세 골이나 넣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자신감이 오른 대표팀은 4골을 목표로 했으나 쿠바와의 대회 여자 수구 15·16위 결정전에서 0-30(0-8 0-9 0-6 0-7)으로 패배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 수구에 의미있는 변화가 생길지 바라고 있다. 남자 대표팀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지훈련이 늘어 한다고 주장하며 저번이 확대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자 대표팀은 여자 수구의 명맥이



이어질 기원했다.

남자 대표팀을 지도하는 이승재 코치는 "지나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마친 뒤 바로 모여서 이번 대회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선수, 지도자 선발이 늦어져 4월14일에야 모였다.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컸다. 지원이 부족해 아쉬웠다"며 "우리도 지원을 받아 전지훈련을 하며 경험하면 경기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팀 마형 권영균도 "우리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면 잘하는 선수들, 체력이 더 큰 선수들과 해야 한다. 전지훈련을 되도록 많이 가고, 직접 상대해봐야 경기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자 대표팀은 "수구를 계속 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주장 오희지(23·전남수영연맹)는 "수구를 계속 하고 싶다. 너무 재미있고, 매력적이다. 홀러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번이 확대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자 대표팀은 여자 수구의 명맥이

스터스 대회도 참가하고 하면, 여자 수구팀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전해보려고 한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권다슬은 "계속 수구를 하고 싶다. 남자면 실업팀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팀원들과 수구를 계속 하고 싶다"고 간절한 바람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자 수구 대표팀의 존속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아쉬움을 남긴다. 수영연맹은 어렵게 턴아웃을 키워주기 위해 마리를 맞대고 있다.

수영연맹 관계자는 "대표팀을 유지하려면 체육회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 대표팀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대표팀을 유지해도 선수가 없어 연습이나 경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시기가 지나면 여자 수구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중등부 2, 3개 학교가 합해 클럽팀을 만들어 시범경기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극적 준결승행' 박수진 "아직 많이 부족"



박수진(20·경북도청)이 "최선을 다했는데 기록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수진은 24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점영 200m 예선에서 2분10초73으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박수진은 전체 17위를 기록, 준결승 진출이 좌절될 듯 했다. 준결승 진출이 가능한 16위 미라리아 벨몬테(스페인·2분10초63)에게 0.1초차로 밀렸다.

하지만 박수진은 오후 9시10분부터 진행된 준결승 스타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신 예선 11위를 차지한 브라에나 트로셀(호주)이 명단에 빠졌다. 트로셀이 준결승 진출을 포기하면서 대가 1번이었던 박수진에게 기회가 돌아왔다.

박수진은 2007년 멜버른 대회 권유리, 2011년 상하이 대회 최해라, 2015년 카잔 대회 박진영, 2017년 부다페스트 대회 안세현에 이어 이 종목 세계선수권 예선을 통과한 5번째 한국 선수가 됐다.

초반 50m를 28초77로 통과한 박수진은 1분02초11로 반환점을 통과했다. 나머지 100m에서 속도를 늦지만 역부족이었다.

박수진은 "최선을 다했는데 기록이 아쉬워 실망이 크다. 이번을 계기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기에 더 보완해 다음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고 고했다.

"기록적으로도 그렇고, 초반 스피드나 폼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체력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인터뷰 당시 박수진은 자신의 준결승행을 물렸다. 전 종목 예선이 끝난지 한참 지나 박수진의 예선 통과가 확정됐다.

박수진은 지난 5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안세현(24·SK텔레콤)을 무너뜨리고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당시 기록은 2분09초26.

박수진 뿐 아니라 대다수 한국 선수들이 선발전보다 낮은 기록을 내고 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해 무더기 개인 기록 경신에 기대지만 지금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

박수진은 "홀그라운드와 많은 사람들이 응원도 해주는 등 장점이 많을텐데 기록이 안 나오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면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기를 많이 뛰어도 긴장감이 없어질 수 없다. 긴장감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큰 무대에 임하는 중압감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래도 안방에서 치르는 세계선수권은 선수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되고 있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팬들의 환호는 큰 힘이다.

박수진은 "익숙한 환경이어서 조금 더 좋다. 환호성이 커서 긴장했는데 응원해주니 좋았다"고 고마워했다.

뉴스스

하이다이빙, 영 헌트 4년 만에 정상 탈환

영국의 개리 헌트(35)가 수영 남자 27m 하이다이빙에서 4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며 지난 대회 무관의 실움을 씻었다.

헌트는 24일 광주 동구 조선포대학교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27m 하이다이빙 결선 경기에서 총점 442.20점을 받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지난 22일 펼쳐진 예선 1·2라운드에서 189.00점으로 4위에 그쳤던 헌트는 이날 3라운드부터 본격적인 추격에 나섰다.

헌트는 3라운드에서 뒤로 서서 앞으로 세 바퀴 돌면서 앞으로 반 바퀴 도는 동작을 완벽히 수행, 97.20점을 받아 3위로 올라섰다.

기세를 올린 헌트는 4라운드에서 난이도 5.2의 기술로 승부를 걸었다. 그는 뒤로 서서 뒤로 3바퀴 돌고 앞으로 4바퀴 도는 동작을 훌륭히 마쳐 156.00점을 받아 3라운드 선두였던 미국의 스티브 로부(34)를 제쳤다.

이로써 헌트는 지난 2015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4년 만에 왕좌에 다시 올랐다.

뉴스스

지난 2017년 부다페스트대회에서도 종목 첫 2연패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5위를 기록, 무관에 그쳤다.

헌트는 하이다이빙이 처음 추가된 2013년 바르셀로나선수권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따내, 선수권 대회에서만 3개의 메달을 갖게 됐다.

3라운드까지 압도적 기세로 1위를 유지, 대회 2연패에 도전했던 디펜딩 챔피언 로부는 4라운드에서 고난도 기술을 선보였지만 119.85점을 받는데 그쳐 2위로 내려앉았다. 로부의 최종 합계 점수는 433.65점이었다.

동메달은 멕시코의 조나단 파레디스(31)에게 돌아갔다. 파레디스는 4라운드에서 128.80점을 획득, 총계 430.15점으로 메달을 손에 넣었다.

뉴스스

FINA "너는 패배자"라고 고함지른 쏬양도 경고

약물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쏬양(중국)과의 대면을 피한 던컨 스콧(영국)과 이를 참지 못하고 비하 발언을 내뱉은 쏬양이 모두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FINA는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 시상식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쏬양과 스콧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FINA 규정 C 12.1.3.0에 의거한 조치다.

23일 자유형 200m 공동 3위에 오른 스콧은 금메달을 딴 쏬양과의 악수를 거부했다. 지난해 9월 도핑 검사관이 집을 방문했을 때 쏬양 측이 혈액이 담겨있는 샘플을 망치로 훼손해 테스트를 회피한 점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아직 진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 선수들은 쏬양이 약물을 사용했다고 확인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자유형 400m에서 맥 호튼(호주)이 그랬던 것처럼 스콧은 뒷집을 친 채 쏬양을 철저히 외면했다. 쏬양은 스콧의 대응에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때 쏬양이 외친



23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연 자유형 200m 결승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중국 쏬양이 동메달을 획득한 영국의 던컨 스콧에게 소리 지르고 있다.

말은 "패배자(Loser)"라고 알려졌다.

FINA는 사태의 발미를 제공한 스콧과 격분한 쏬양 둘 다 제재했다. 이번 대회 들어 이번까 '쏘양 패싱'으로 FINA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호튼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뉴스스

'쏘양 거부' 스콧 "내 의견 이미 알렸다"

몇몇 선수들 호튼·스콧 지지... "깨끗한 스포츠 위해 일어난 것"



23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 시상식,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의 쏬양과 은메달을 획득한 일본의 미쓰모토 가스히로, 동메달을 획득한 러시아 마르틴 말류틴이 기념촬영을 하는 가운데 함께 동메달을 획득한 영국의 던컨 스콧이 멀리 서 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개인혼영 200m 예선 경기가 끝난

뒤 미스트존은 북적거렸다. 던컨 스콧(22·영국)을 인터뷰하기 위한 취재진

이 몰렸기 때문. 이날 오전 국제수영연맹(FINA)은 스콧과 이를 참지 못하고 비하 발언을 한 쏬양에 모두 경고 조치했다. FINA는 호튼에게도 경고를 내렸다.

취재진이 모여들자 스콧은 "쏘양에 대한 질문이냐"고 묻은 뒤 "쏘양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질러 말했다.

계속해서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스콧은 "나는 이미 내 의견을 알렸다"고 답했다.

도핑 회피 의혹을 받는 쏬양에 대한 다른 선수들의 거부 움직임은 이번 대회 최대 화제로 떠올랐다. 몇몇 선수들은 호튼과 스콧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날 남자 개인혼영 200m 예선을 치른 호주의 미첼 라킨은 "호튼과 스콧은 깨끗한 스포츠 종목을 만들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모든 경기가 깨끗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지했다.